

그 곳에 기억에서 잊혀지던 그녀들이 있었다

잠녀를 만나다-107.울릉도 독도의 제주 잠녀들 1

등록 : 2009년 05월 19일 (화) 10:43:51
최종수정 : 2009년 05월 19일 (화) 10:43:5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울릉도 해안선

**'고향 사람'에 맘 열고 힘들었던 기억까지 솔솔..."이젠 이곳도 고향"
먹고 살려고 떠난 길에 돌아갈 기회 놓쳐, 마음만은 늘 제주와 함께**

제주 잠녀가 손대지 않은 곳이 한반도 속 어딘을 있을까. 오랜 물질로 이젠 뼈마디가 굽고,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잠녀들의 기억 속에는 한반도 바다지도물 물속까지 모두 그리고 남는다.

고향으로 돌아와 익숙한 바다에 몸을 기댄 잠녀들과 달리 삶을 이어가려 찾았던 곳을 고향 삼아 제주에 대한 오랜 향수를 품고 있는 잠녀들의 기억 속 바다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제민일보 '제주잠녀'기획취재팀은 해녀박물관과 함께 지난 4~8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현지 취재를 진행했다.



▲ 한영숙



▲ 김춘열

고향 사람 보는 것에 마음은 “제주로”

낯선 이의 방문이 그다지 맘에 드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현지에서 만난 잠녀들 모두 “제주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이내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

어떻게 울릉도 독도까지 와서, 정착하게 됐는지를 하는 물음에 이구동성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답했다.

독한 결심에 울릉도행 배에 몸을 싣었지만 몇 번이고 포기하고 돌아가



▲ 김화순



▲ 김신열

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래도 적잖은 목돈을 만들어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오랜 뱃길을 견디고도 남았다.

타지에 정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터, 울릉도에 터를 잡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고통은 더 컸다.

“3년만 버티자”며 이를 악물었던 20대 제주 비바리는 지금 허리가 굽은 70대 할머니가 됐다. 김춘열 할머니(78) 얘기다. “며

칠만 더 있으면 금능에 간다 했던 게 50년도 훨씬 넘었다”는 김 할머니의 눈가에는 모래 고운 고향 바다가 그렇그렇하다.

“머리 매기나 하고 왔으면 좋았을 걸...” 몇 번이고 부엌이고 방을 뒤지는 김화순 할머니(89)는 울릉도 바다에 아들 둘을 앞세웠다. 부산과 남해, 군산 등을 돌며 물질을 하다 마지막 닿은 곳이 이곳 울릉도였다. 그래도 아직 바다에 가는 김 할머니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말을 아꼈다.

‘제주말은 벌써 잊고 그곳 사람이 다 됐다’ 싶지만 마음만은 늘 제주도와 함께였다. 고령의 나이를 비롯듯 아직도 미역작업을 위해 물에 드는 모습은 억척스런 제주 어머니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 울릉도 앞바다에서 미역을 캐고 있는 해녀

#책 10권 써도 모자랄 이야기

“비가 내리면 ‘생일날’같았다”는 얘기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면서 이내 숙연해진다. 그런 고생을 견디고 나서야 겨우 가족들 끼니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물이 귀한 독도에서 비가 내리면 그나마 몸을 쉴 수 있었던 그 사정을 누가 다 알아줄까.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자꾸 그때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지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별 걸 다 묻는다며 손사래를 치던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보제기’소리를 들으면서도 물에 들었고, 미역을 채취하고 말리는 일까지 쉬지 않았다.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다.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그런 과정 없이 지금의 그녀들은 없었다.

서글퍼 흘렸던 눈물만큼 그 바다는 여전히 푸르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울릉도에 잠녀가 있었다는 걸 누가 기억이나 할까” 김춘열 할머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주 잠녀는 시나브로 잊혀지고 있다.

아직 기억할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녀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다.

3~4회에 걸쳐 울릉도 독도의 제주 잠녀 이야기를 정리한다.